

1. 열기
2. X축: 나의 공간 좌표 찾기
3. Y축: 사물과 자아
4. Z축: 일상의 사물과 관계 맺기
5. 사물의 좌표
6. 닫기

PP:152-173

김경진
(신당창작아카데미드 13기)

Kim Kyungjin
(The 13th Artist, Residency of
Seoul Art Space Sindang)

자유 기고 Free Contributions
작품중심연구 Project Based Research

사물의 좌표: 일상의 사물과 관계 맺기 The Coordinates of Objects: Forming Relationships with Everyday Objects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투고일 2022년 7월 8일
심사일 2022년 7월 11 -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1일

Received Date 8 July 2022
Reviewed Date 11-25 July 2022
Accepted Date 1 August 2022

핵심어

사물, 좌표, 공간,
정체성, 태도,
디자이너,
관계 맺기

Keywords

object,
coordinates,
space,
identity,
attitude,
designer,
relationship

요약

사물은 일상에서 삶의 좌표로 존재하고, 그 좌표는 사물을 일상 안으로 다시 맥락화한다. 다시 말해, 사물은 소유와 용도에 따라 감정, 기억, 태도 등 다양한 기호로 작동하고, 삶의 좌표는 사물, 공간의 속성과 존재의 지향점을 내포한다. 이처럼 사물, 공간, 그리고 인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 안에 나의 삶의 태도가 있다. <사물의 좌표>는 내가 주거 독립 후 1년 동안 집에 사들인 사물에 관한 아카이브 프로젝트이다. 일상에서 사물을 들이고 관계 맺는 태도와 방식에 관한 경험 탐구를 통해 디자인에 직접 연결되어 나의 디자인을 지배하는 기준을 찾아 이를 웹사이트, 책, 전시 공간에 담았다.

Abstract

Objects exist as coordinates of life in everyday life, and those coordinates re-contextualize objects into daily life. In other words, these operate as various signs like emotions, memories, and attitudes depending on their possession and use. Moreover, coordinates of life imply the attributes of objects and spaces, as well as the ownership and purposes of existence. In this way, objects, places, and humans lie in a conjunct connection where there is our attitude toward life. <Coordinates of Objects> is an archive project that I bought for a house a year after I became independent. Through my experiences on attitudes and ways of bringing objects into my daily life, I tried to look through my perspective that covers my design, put them all in a website and book, and carried them in an exhibition.

1. 열기

선택하는 인간의 행위는 주체적 자의식이 지배한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선택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존하며 선택의 결과는 개인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사물을 선택하고 관계 맺는 태도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태도와 닮았다. 그렇기에 사물을 선택하는 사람은 또 다른 디자이너인 셈이다. 나는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디자인이 무엇인가'라는 쉽게 풀리지 않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계기로 <사물의 좌표>를 기획했다. 주거 독립 1년 동안 집에 들인 사물을 아카이브 함으로써 일상의 사물과 관계 맺는다는 것이 어떻게 디자이너로서 나의 주체성을 반영하는지 살펴, 사물을 대하는 나의 관점과 태도를 나만의 디자인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물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의미를 투영하는 장치로서 좌표라는 개념을 활용했다. 이어 사물의 의미를 검토하고 사물과 인간의 관계 맺는 방식과 사물과 자아의 관계를 심리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내가 사물을 들고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사물에 얽힌 단상에 반복 등장하는 기준과 나의 디자인 행위의 접점을 들여다보았다. 끝으로 사물을 대하는 나의 관점과 태도가 디자이너로서 내게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았다.

2. X축: 나의 공간 좌표 찾기

좌표는 데카르트(René Descartes)가 처음 발견한 수학적 개념으로 “직선·평면·공간에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수나 수의 짝”¹을 말한다. 좌표는 또 명사형으로 “사물이 처하여 있는 위치나 형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²로도 쓰이는데, ‘한국 역사가 걸어온 좌표’, ‘21세기 한국 경제의 좌표’, ‘인생의 새로운 좌표를 찾아서’ 등과 같이 시간이 포함되어 사물이나 공간·사람 등의 과거 행적, 현재 상황, 미래의 지향점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좌표는 공간·사물·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 글에서는 거주 공간으로서의 집, 혹은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관점에 다중 의미로 쓰인다.

한편, ‘비어있는 틈’을 뜻하는 공간(빈 공(空), 사이 간(間))은 수학, 물리학, 철학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는데, 좀 더 넓은 개념적 범주에서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³라는 뜻으로 이해할 때 나와 타자의 관계 속 존재의 바탕이 된다. 이렇듯 공간은 삶과 삶,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터전을 제공하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바탕이다.

일반적으로 공간은 크게 세 가지,
1) 추상 공간(유클리드/비유클리드),
2) 실재(물리적) 공간(순수 공간(절대 공간/상대 공간), 구성 공간), 3) 의사 공간(유사 공간)으로 구분된다.

1 — 네이버 지식백과, 좌표 (coordinates, 座標) 두산백과, (2021.10.1)
2 — 네이버, 같은 웹사이트
3 — 네이버 표준어 대사전, 공간(空間), (2021.10.1)

추상 공간은 수학적 공간, 공간 도형과 같은 공간이다. 실재 공간은 순수 공간과 구성 공간으로 나뉘는데, 순수 공간은 그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가 포함되지 않은 텅 빈 공간 자체를 의미한다. 순수 공간은 다시 절대 공간과 상대 공간으로 구분된다. 절대 공간은 뉴턴의 공간 개념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공간이다. 상대 공간은 극한 세계의 공간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험 세계의 성질을 가진다. 이는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일치하는 세계다. 구성 공간은 물질 안에 있는 상태의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의사 공간은 개념을 사용할 때 유추하거나 비유를 들어 적용하는 공간이다. 대화의 공간이나 해방의 공간 사이버 공간 등이다.⁴

한편 노자(老子)의 무위자연(無爲自然)(『도덕경(道德經)』)은 ‘비어있음’의 효용성을 강조한다. 이는 서양 인식론에서 ‘물체와 물체 사이’, ‘물체의 주위’를 의미하는 공간과는 다른, 그 자체로 하나의 존재이자 실존의 공간이다.⁵

다시 말해, 인간은 감각기관의 능력 내에서 존재를 통해 공간을 유추하는데, 이때 공간은 수많은 단편적 경험의 종합으로 형성된다. 즉, 공간은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통해 인식되고,

사물은 다시 인간의 감각에 영향을 준다. 단순히 비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감각이 머무는 곳이며, 지각하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존재하는 무엇이다.⁶

실재 공간에서 사람들은 공간을 소유, 사용, 구성하는데, 이는 공간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의지를 다지고, 행위를 하며,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삶의 영역을 확장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⁷

이처럼 공간은 인간의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관계에 의해 장소의 성격을 얻게 된다. 인간의 공감 지각이 스스로 생긴다는 점에서 공간은 지각의 주체인 인간을 기준으로 중심화된다. 장소는 목적이 있는 공간이며, 물리적 공간과 주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인식되는 내향적으로 체험되는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공간이다. 장소는 곧 실존적 공간의 기본 형태이다.⁸

한편, 거주 공간은 자연과 외부 세계로부터 인간을 보호한다.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는 집을 인간을 보호하는 ‘모성성’과 ‘응집성’으로 ‘집과 세계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 설명하며, 엄마 품처럼 포근하게 보호되는 속성을 집의 근원적 모성성으로 묘사했다.⁹ 이처럼 인간은 집이라는 공간을 꾸미고, 바꾸며, 타인과의 관계 안에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세운다. 공간이 거주 주체를 투영하는 일종의 좌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정체성을 확인받고자 그 정체성에 대응하는 공간을 만든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하는 정체성은 ‘나’와 ‘나 이외의 것’을 끊임없이 비교, 대조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확립된다.¹⁰

4 — 권오혁 외, 「공간의 개념정의에 관한 온라인 토크」, 『공간과 사회』, 21권, 2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11), p.260

5 —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국제, 2001), p.11

6 — 권영걸, 같은 책, p.14

7 — 김재철, 「공간과 거주의 현상학 불노오의 공간 이해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56, (새한철학회, 2009), p.369

8 —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국제, 2001), p.15

9 — 홍경희, 「‘집’을 시점-공간-장소적으로 해석한 금속 조형 연구」, 박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2019), p.18

10 — 박규상, 『욕망하는 집』, (서해문집, 2014), p.58 (새한철학회, 2009), p.369

3. Y축: 사물과 자아

사물은 '물질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와 '사건과 목적', '일과 물건'을 아우른다. 공예 또는 대량 같은 생산 방식에 따라 사물의 원본성이 달라지기도 하고, 소비의 주체에 따라 사물은 서로 다른 기의를 획득하기도 한다.

2차 기호에 새로운 기의가 첨가되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는 신화론(Roland Gérard Barthes, 1957)¹¹ 혹은 사물은 자아의 표현이자, 자아의 일부라는 제임스(William James)의 인간 자화상에 관한 시각¹², "일상생활에서의 인간과 사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세계의 이해를 위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¹³라는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말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공존하는 사물과 그것에 관계 맺기 하는 인간의 태도가 우리 삶과 사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드러낸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물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

제임스는 『심리학의 원리』에서 "인간의 자아는 자기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의 총합이며, 신체와 심리적 힘뿐 아니라 옷, 집, 아내, 자식, 명성, 직업, 땅, 요트, 은행 계좌까지 모두 합친 것이다."¹⁷라고 말하며 물질 세계와 자아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간이 자신과 자기의 소유물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는 내면과 물질의 세상 사이에 공간적 관계가 존재하는데 어떤 물건을 얻으면 물질적 자아가

확장되고, 어떤 물건을 잃으면 물질적 자아도 축소된다고 했다.

심리학자 올포트(Gordon Allport)는 1930년대에 인간의 자아 형성에 대해 설명하며, 인간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자기 것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사물로부터 자존감을 확장하며 자기만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했다.¹⁴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와 록버그 홀튼(Eugene Rochberg Halton)은 "우리를 둘러싼 물건들은 우리인 것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들은 "우리가 사물을 만들면 훗날 그 사물이 우리를 만든다"라며 "사물은 필요에 따라 쥐었다 놓는 도구에 불과하며, 사물은 경험의 틀을 형성하여 윤곽 없는 우리의 자아에 질서를 부여한다" 했다.¹⁵

종합하자면, 인간의 정체성과 자의식을 담은 사물은 우리가 누구였는지, 누구인지, 누가 되고 싶은지를 이해하게 돕는다. 사물은 이처럼 각각의 서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물을 구입하거나, 선물 받거나, 직접 만든다. 그것들은 우리의 취향과 인생관을 품고, 우리의 사고 폭을 넓혀 독창성을 자극하며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엮는다. 나아가 의식으로 다가갈 수 없는 보다 심오한 측면들을 깨닫게 한다.¹⁶

11 — 오창섭, 『내 결의 키치』, (홍시, 2012), p.73

12 — 아네테 웨퍼, 『사물의 심리학』, 장혜경, (북하우스, 2013), p.44

13 — 아브라함 몰르, 『키치란 무엇인가?』, p.45

14 — 아네테 웨퍼, 『사물의 심리학』, p.45

15 — 아네테 웨퍼, 같은 책, p.46

16 — 아네테 웨퍼, 『사물의 심리학』, p.44

4. Z축: 일상의 사물과 관계 맺기

2019년 6월 중순, 나는 처음으로 독립을 위해 이사를 하면서 사물을 철저히 나의 기준에 의해 집에 들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내가 사물을 선택하는데 부여한 기준은 내가 디자이너로서 공간의 정체성을 디자인하는 태도에 직결된다는 점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인의 취향을 수렴하고 반응해야 하는 디자이너로서 정작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일상의 사물을 아카이브 하면서 거울을 마주하듯 나의 기준과 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았다.

'사물 들이기'를 시작했다. 이전에 살던 집에서 가져오거나, 새로 사거나, 중고로 사거나,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다. 막연하지만 사물을 들이는 기준이 있었다. 기준에 부합하는 사물을 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쓰거나, 이동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하는 따위의 몸을 쓰는 노력이 필요했다. 매번 스스로 반문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시간을 써서 사물을 들어 나를 일인가?' 집 앞 상점이나 인터넷으로 쉽게 사도 되는 것들을 쉽게 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막연한 그 기준들이 있어서였다.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사소한 그 기준들은 나를 움직이고 행동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디자인을 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종이를 고르거나, 인쇄나 후가공 방식을 고민하며 비교, 대조하거나, 인쇄 감리를 보거나 하는 것들은 시간과 움직임이 필요한 일들이다. 그럼에도 이 사소한 시간과 움직임을 생각하면 어김없이 계획한

결과와 멀어지게 된다. 결코 작지 않은 많은 기준들이다. 이처럼 사물을 들일 때 내가 적용한 기준은 계획한 결과를 얻기 위한 중요한 태도였다.

이런 이유로 나는 사물을 들이기 위한 사물 공식 기준을 정리하고 이에 대응하는 나의 행동을 규명하기 위해 1년 동안 모든 영수증 기록을 살펴보았다. [표 1-3]

'사물 들이기'의 시작은 공간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부터였다. '집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집이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 '집에서 나는 주로 무엇을 하는가?', '나는 집을 통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등이었다.

내게 집은 안전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쉼을 주고, 밝은 미래를 도모하고, 사람과의 관계와 즐거움을 주는 순환의 공간, 그리고 거주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담은 공간이어야 한다. 이런 목적은 사물의 종류와 형태, 색 등을 결정하는 주 요인이 되었다. 딱딱하고 반듯한 직선보다는 원과 유선형의 부드럽고 안전한 인상의 사물을 선택했다. 네모반듯한 모양이라도 한쪽 면이 다른 면과 만나는 모서리 필렛의 지름 크기가 커서 둥근 인상을 주는 사물도 포함했다.[그림 1]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이 아닌 소박하고 정감가는,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는 사물을 선택했다. 집의 편안함에 촉각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금도 나는 바닥에 발을 디딜 때 느끼는 촉감으로 내가 발을 내딛는 위치가 어디인지 감각한다. 안방 러그, 욕실 앞 매트, 싱크대 앞 매트 등 각 공간에 맞는 바닥의 질감 차이를 두었다. 순환의 이미지를 위해서 고립의 인상을 깰 수 있는 사물을 선택했다. 이런 기준들로 만든 나의 사물

공식은 다음과 같다.

사물 공식

1) 자연과 가까운 색을 고를 것

- ① 색이 없는 빛의 색, '하얀색'
- ② 나뭇잎의 생성과 소멸에서 나오는 색, '베이지색', '갈색', '녹색'

2) 자연스러울 것

- ① 공간을 썩 둘러보았을 때 눈에 거슬리지 않는 사물
- ② 되도록 자연과 가까운 재질의 사물

3) 각 공간의 목적과 특성에 맞을 것

- ① 집의 의미에 적합한 사물
- ② 안방, 거실, 화장실, 주방 등 각 공간을 공간답게 만드는 사물

4) 소박한 인상을 품을 것

- ① 화려하기보다는 소박하고 수수한 느낌의 사물
- ② 가공이 최소화된 원재료 형태와 색

5) 보여주는 것이 아닌 사용하는 사물의 측면에서 색상 형태에 군더더기가 없을 것

- ① 한두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사물
- ② 불필요한 디테일이 없는 사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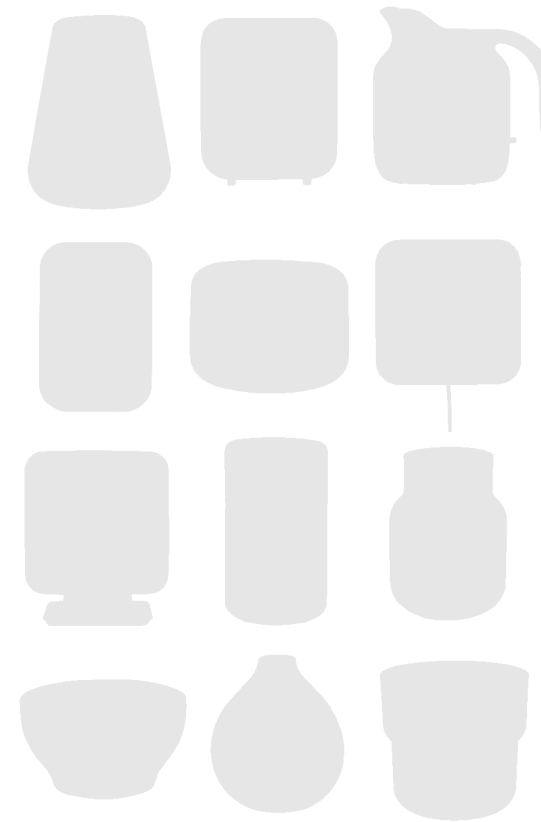
6)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사물일 것

- ① 가격이 합리적이고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사물
- ② 마감이 깔끔한 사물
- ③ 꼭 필요한 기능들로 여러 상황으로 이용 가능한 사물

1년간 모은 영수증을 정리했다.

인터넷으로 들인 사물과 중고 거래로 산 사물도 함께 정리했다. 인터넷으로 산 것은 N메일에 '결제' 검색어로 검색된 것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N메일은 보통 오픈마켓이나 사이트에 가입할 때 가입하는 정보로 사물 구매 시 이메일로 결제 알림이 온다.[표 3] 중고 거래는 휴대전화의 문자 기록에서 '중고'로 검색하여 정리했다. 행동의 태도로서 영수증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기에 이동 거리와 이동 시간 항목을 추가했다.[표 2] 사물 들이기 이동 수단은 대중교통이다. 지하철과 버스 환승 두 가지만으로 이동했기에 N지도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적고 지하철과 버스로 환승하는 이동 시간을 값으로 산출했다. 사물을 둘러보고 사는 시간은 객관적인 계산이 어렵기에 제외했다.

[표 1]을 살펴보면 이케아에서 2019년 6개월 동안 20번, 인터넷으로는 6번 산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는 이케아 제품을 불편하게 직접 매장을 가서 구매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사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르려는 이유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산 사물도 항상 직접 보고 난 후 생각이 나거나 들지 못할 정도의 무거운 무게의 사물만 사들였다. 인터넷을 통해 들인 사물의 특징을 보면 실제 매장이 없거나 매장이 있어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정상가를 주고 들이기에 부담이 되는 것들은 중고가로 샀다. 이를 토대로 태도 공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그림 1] 집의 안전함이 연상되는 부드러운 유선형 사물의 인상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순으로) 가습기, 토스트기, 전기포트, 온도습도계, 디퓨저 가습기, CD플레이어, 전기 히터, 디퓨저 가습기, 꽃병, 밥그릇, 꽃병, 화분

태도 공식

1) 눈으로 보기 1

시간 쓰기: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여러 군데 돌아보며 시간을 쓴다.

2) 눈으로 보기 2

이동하기: 찾는 것이 먼 거리에 있어도 이동한다.

3) 눈으로 보기 3

직접 비교하기: 저렴한 비교 가능한 소모품들은 직접 사서 대조한다.

4) 기다리기

당장 필요한 필수품이어도 원하는 것이 없으면 사지 않는다.

5) 무거워도 들기

사고자 하는 종류가 너무 많아 짐이 무거워도 들고 올 수 있다면 덜지 않고 산다.

6) 직접 만들기

공간에 맞는 적당한 사물이 없다면 직접 만든다.

나의 태도는 직접 몸을 쓰는 행동에서 비롯된다. 사물 공식에 맞는 사물을 들이기 위해서 행동을 규정하는 태도가 필요했고, 대개 일종의 집념에 의해 유지되는 것들이었다.

영수증

일자 (연월일)	브랜드	갯수	출발지	도착 지점명	이동 거리 (km)	이동 시간 (왕복)	
2019							
6	17(월)	무인양품	11	회사	강남	21.5 1:12	
	18(화)	무인양품	5	회사	잠실 롯데월드몰	14.7 1:04	
	19(수)	무인양품	1	회사	강남	21.5 1:12	
	21(금)	이케아	26	집	광명	66 3:00	
	22(토)	무인양품	7	집	강남	22.2 1:10	
	24(월)	무인양품	1	회사	강남	21.5 1:12	
	29(토)	무인양품	2	집	영풍종로	24.7 1:50	
7	5(금)	이케아	42	집	고양	63.4 3:00	
	6(토)	무인양품	6	집	잠실 롯데월드몰	17.8 1:06	
	7(일)	무인양품	17	집	잠실 롯데월드몰	17.8 1:06	
	8(월)	이케아	12	집	고양	63.4 3:00	
	12(금)	무인양품	9	집	잠실 롯데월드몰	70.8 3:14	
		이케아	24	광명			
	15(월)	이케아	25	집	고양	63.4 3:00	
	18(목)	무인양품	1	집	영등포 타임	44 2:20	
	19(금)	무인양품	7	집	잠실 롯데월드몰	102.3 4:24	
		무인양품	2	영등포 타임			
		이케아	4	고양			
	21(일)	이케아	9	집	광명	66 3:00	
	24(수)	무인양품	6	집	잠실 롯데월드몰	17.8 1:06	
	25(목)	이케아	9	집	고양	63.4 3:00	
	27(토)	무인양품	1	집	잠실 롯데월드몰	17.8 1:06	
		자라홈	1	롯데월드몰			
	31(월)	이케아	3	집	고양	63.4 3:00	
8	1(목)	이케아	-1	집	고양	63.4 3:00	
	8(목)	이케아	13	집	광명	66 3:00	
	16(금)	테팔	1	집	광명 롯데아울렛	66 3:00	
		이케아	14	광명			
	17(토)	무인양품	8	집	잠실 롯데월드몰	17.8 1:06	
	19(월)	이케아	4	집	광명	66 3:00	
9	2(월)	무인양품	8	집	잠실 롯데월드몰	17.8 1:06	
		15(일)	무인양품	7	집	잠실 롯데월드몰	17.8 1:06
		26(목)	이케아	17	집	광명	66 3:00
	30(월)	이케아	19	집	고양	63.4 3:00	

[표 1] 영수증 정보(2019년 6월 17일-2020년 6월 13일)

일자 (연월일)	브랜드	갯수	출발지	도착 지점명	이동 거리 (km)	이동 시간 (왕복)
10	2(수)	무인양품	2	집	잠실 롯데월드몰	17.8 1:06
	11(금)	이케아	8	집	광명	66 3:00
	15(화)	이케아	6	집	광명	66 3:00
	17(목)	이케아	14	집	광명	66 3:00
	24(목)	이케아	8	집	광명	66 3:00
11	17(일)	무인양품	1	집	잠실 롯데월드몰	17.8 1:06
12	2(월)	이케아	14	집	광명	66 3:00
	27(금)	자라홈	1	집	잠실 롯데월드몰	17.8 1:06
2020						
1	3(금)	이케아	13	집	광명	66 3:00
	12(일)	무인양품	3	집	잠실 롯데월드몰	17.8 1:06
		자라홈	1	롯데월드몰		
	20(월)	무인양품	4	집	잠실 롯데마트	18 1:10
	24(금)	무인양품	6	집	잠실 롯데마트	18 1:10
2	10(월)	광명점	5	집	광명	66 3:00
	17(월)	무인양품	4	집	을지로 롯데백화점	25.6 1:40
	20(목)	이케아	2	집	광명	66 3:00
	22(토)	이케아	8	집	광명	66 3:00
	26(수)	이케아	9	집	광명	66 3:00
4	30(목)	이케아	10	집	광명	66 3:00
5	11(월)	무인양품	2	집	잠실 롯데월드몰	17.8 1:06
6	13(토)	에이치엔엠 홈	1	집	잠실 롯데월드몰	17.8 1:06
계	49		443개		2184.2km	107시 56분

(집-중곡동, 회사-청담동)

중고 거래

일자 (연월일)	브랜드	품목	위치	이동 거리 (km)	이동 시간 (왕복)
2019					
6	24(월)	무인양품	빈백	사당역	31.4 1:40
	25(화)	무인양품	빈백	양천향교역 구의역	57.6 2:36 8.6 50
	30(일)	무인양품	아로마오일	택배	
7	24(수)	풀러스	공기청정기	약수역	18.2 1:20
			마이뉴스제로		
	31(수)	무인양품	CD플레이어	원흥역	55.8 2:20
계	5			171.6km	8시 46분

[표 2] 중고 거래(2019년 6월 25일-7월 31일)

인터넷 거래(N메일)

일자 (연월일)	구매처	브랜드	품목
2019			
6	1(토)	옥션	하토
	10(월)	에이치몰	베디스
	17(월)	우먼건담	반다이코리아
	18(화)	네이버페이	베스트렉
	22(토)	네이버페이	이케아
	23(일)	한샘몰	파로마
	26(수)	네이버페이	아라크네
7	1(월)	옥션	테팔
	6(토)	옥션	풀러스마이뉴스제로
	7(일)	쿠팡	엘가
	9(화)	위메프	매직볼트
	10(수)	네이버페이	샤오미
	11(목)	마켓비	마켓비
	15(월)	티몬	페스트세븐
	16(화)	네이버페이	마켓비
	17(수)	티몬	노루페인트
	18(목)	네이버페이	아이베란다
		원단세상	
		캔들날다	
	22(월)	이케아	이케아
	23(화)	오케이몰	킨토
	24(수)	롯데몰	더릭스
		롯데홈쇼핑	쿠쿠
			침대프레임
			메트리스
			에반게리온
			8호기 프라모델
			철제선반
			스툴
			벽걸이 거울
			블라인드
			냄비세트
			벽시계
			양념병
			랙 옷걸이
			로봇청소기 가상벽
			단 스탠드
			바퀴벌레 약
			LED 전구
			수납함
			페인트
			목봉
			린넨, 면 원단
			나무 받침
			실내외 수납장 외
			머그잔
			매트리스
			밥솥

일자 (연월일)	구매처	브랜드	품목
	29(월)	텐바이텐	데이그로우
	30(화)	에스에스지	필리빙
8	1(목)	네이버페이	로렌
	3(토)	이케아	이케아
	5(월)	오케이몰	킨토
	6(화)	옥션	유한
		위메프	에코다이
	7(수)	티몬	노루페인트
	19(월)	네이버페이	포스터메이커스
9	1(일)	네이버페이	킨토
	5(목)	네이버페이	어반하우스
	9(월)	티몬	퀸센스
		에스에스지	비제이
	17(화)	이케아	이케아
	20(금)	네이버페이	오션타울
	27(금)	쿠팡	아이엠판다
10	01(화)	글라스락	글라스락
	15(화)	이케아	이케아
	22(화)	네이버페이	필플랜트
	23(수)	네이버페이	키친구
		이케아	키친팩토리
	31(목)	오늘의집	블루밍앤미
11	27(수)	시코몰	풀러스마이뉴스제로
	28(목)	무인양품	무인양품
		시코몰	풀러스마이뉴스제로
12	6(금)	이케아	이케아
2020			
1	1(수)	네이버페이	아투어
	3(금)	옥션	샤오미
	4(토)	11번가	아코룩
	6(월)	자라홈	자라홈
	20(월)	오난코리아	루메나
	25(토)	이케아	이케아
	26(일)	데코원	로열킴스
	31(금)	11번가	아이데코
2	24(월)	네이버페이	에디슨
	27(목)	네이버	고무나라
3	1(일)	네이버페이	샤오미
	7(토)	네이버페이	생활도감
	8(일)	천삼백케이	유즈툴투스
4	1(수)	이케아	이케아
	8(수)	쿠팡	브라운
	16(목)	에이치엔엠홈	에이치엔엠홈
	30(목)	네이버페이	공간채움
5	9(토)	이케아	이케아
계	60		

[표 3] N이메일 결제 정보(2019년 6월 1일-2020년 5월 9일)

사물, 공간, 관계 맺기

사물을 들일 때 사물 자체의 미감과 기능적인 측면만이 아닌 사물이 놓인 공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를 생각한다. 사물 하나의 디자인은 개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주위 것들과 관계하기에 그 모습이 조화로울수록 선택 가능성이 커진다. 어디에 두고 쓸 것인지, 그 주위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들이는 사물의 형태가 달라진다.

주위 환경에 따라 선택하는 사물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화장실에 선반이 필요해 그 소재와 색을 고민할 때 화장실 주위를 둘러본다. 샤워기, 수도꼭지가 스테인리스 재질이다. 이는 화장실의 특성상 물기 때문에 습한 환경에 적합한 소재이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선반도 스테인리스 소재를 고른다. 플라스틱이라는 다른 소재를 선택하지 않고 되도록 자연스럽게 공간에 부여된 규칙대로 소재와 색을 고른다. 주방의 선반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이다. 주로 내가 고르는 사물의 과반수는 하얀색과 베이지색이다. 하지만 주방 철제 선반은 그 색이 아니다. 그 이유는 싱크대와 수도꼭지가 스테인리스 재질은 은색이기에 같은 은색의 철제 선반을 선택함으로써 주방과 거실의 구획을 명확하게 나누려는 의도 때문이다.

공간의 목적에 따라 공간을 만드는 사물을 들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쓸모 있는 사물을 오브제로 활용한다. 주방 고무장갑, 화장실 휴지통, 양치 컵, 샤워타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는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을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한다. 칫솔질 후 입을 헹구는 것도 맨손으로 물을 담아 한다.

화장실 휴지통도 사용할 일이 없다. 이 사물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지만, 공간의 허전함을 채워주며 공간다운 색을 입혀준다. 또한, 사물을 들일 때 색은 되도록 선택하지 않는다. 하얀색과 베이지색은 공간 안에서 내게 색이 아니다. 자연스러움과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나는 공간 안에서 튀지 않는 사물을 선택한다. 사물의 기준에 따라 색과 형태를 고르지만, 이는 오히려 색을 고르지 않는 것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어진 공간 안에 가장 잘 어우러지는 색이 하얀색과 베이지색이었던 것이다. 만약 내가 빨간색 공간에 살았다면 나는 빨간색 사물을 고르지 않았을까? 결국 내가 들인 사물의 색은 사물이 놓이는 공간의 빛 명도 차이로 생기는 색이다. 나는 이것을 'X축의 사물'과 'Y축의 사물'¹⁷이라고 이름 붙인다.

5. 사물의 좌표

〈사물의 좌표〉 프로젝트를 웹사이트, 책, 그리고 물리적 공간을 활용한 전시로 담았다.

사물을 아카이브 하는 행위에 담긴, 내가 세우고 있던, 막연하지만 존재하는, 특정 규칙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물의 외형적 특징만이 아니라 사물이 주위 환경과 관계 맺는 방식, 그 사물을 들이는 나의 태도에 관한 것들이었다. 사물과 사물 외부의 것들과의 관계를 통해 23가지 키워드를 도출했다. 이 키워드는 사물과 관계

17 — 여기에서 X축은 바닥, Y축은 벽을 의미한다.

맺는 태도와 기준 그리고 감정과 경험을 포함한다. 사물은 나의 모든 감각을 이끌어낸다. 각 키워드는 짧은 에세이로 설명했다.

23가지 키워드¹⁸ 중 주요 사건 세 가지를 선별하고 이 세 가지를 매체에 적용하고 전시했다. 주요 키워드 세 가지는 '어깨의 상처', '죄책감', '무쓸모의 쓸모'이다. '어깨의 상처'는 사물을 들이는 태도와 행동에 관한 것이며, '죄책감'은 자신의 기준과 소신에 관한 것, '무쓸모의 쓸모'는 사물과 관련한 서사에 관한 것이다.

어깨의 상처

이사 후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케아에 갔다. 광진구에서 경기도 광명시 혹은 고양시를 오갔다. 한 번 갈 때마다 버스와 지하철로 서너 번의 환승과 왕복 3시간 이상을 할애해야 갈 수 있는 곳이었다. 팽창된 파란 이케아 비닐 백을 터지지 않게 투명 테이프로 봉합한 후 양쪽 어깨에 이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녹초가 되었고, 어깨엔 붉은 상처가 나 있었다. 상처는 보통 2주 동안 지속되었는데,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나는 어깨에 새로운 상처를 덧칠했다. 지겨운 이케아, 언제까지 가야 할까...

죄책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은 하얗고 군더더기 없는 것이다. 생필품과 가전제품을 사들이기 위해 국내 여러 브랜드를 찾아보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일본의 무인양품, 플러스마이너스제로의 가전제품에 눈이 멈췄다. 바로 내가 찾는 것들이었다. 2019년 7월 2일부터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 晋三)가 대한민국 수출 통제 조치를 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에서 '노재팬(NO JAPAN, 일본 제품 불매운동)' 운동이 일어났다. 이사 후 보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대체 가능품을 못 찾은 나는 하나둘씩 몰래 사물을 들어 나르기 시작했다. 살 때마다 죄책감이 쌓여갔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무인양품을 집 드나들듯 오갔다.

무쓸모의 쓸모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어느 정도 들었지만, 여전히 허전하게 느껴진다. 금색 기린 조형물, 동그란 나무 모빌, 여러 재질과 크기의 화병 등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을 집에 들이니 집이 집 같아졌다. 실용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것들, 있으나 없으나 사는 데 불편하지 않은 것들, '무쓸모의 쓸모'다.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프라모델, 피규어 역시 같은 맥락의 사물이었다. 집을 집 같이 만들어주고,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사물. 어쩌면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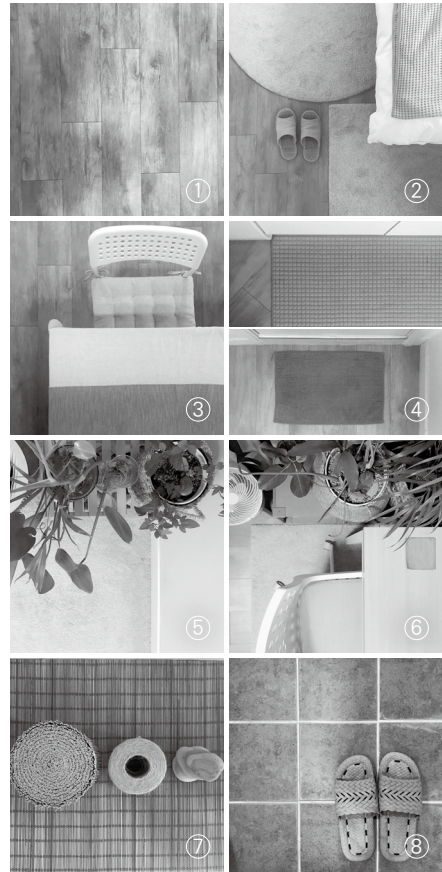
18 — 23가지 키워드 - (1) 어깨의 상처, (2) 죄책감, (3) 무쓸모의 쓸모, (4) 하얀색 집착, (5) 빛의 표정, (6) 환영, (7) 흡집, (8) 완벽은 없다, (9) 대접, (10) 축하, (11) 동경, (12) 규칙적 관심, (13) 증거, (14) 어머니의 사랑, (15) 검열, (16) 진짜처럼, (17) N차 신상, (18) 생각보다..., (19) 코로나19 덕, (20) 컴퓨터, (21) 내 손, (22) 패턴, (23) 불안정

X축의 사물

- (1) 바닥을 마주하는 면적이 넓은 사물
- (2) 바닥에 비추는 자연광의 명도 차이에 따른 색
- (3) X축의 사물은 Y축일 때 포인트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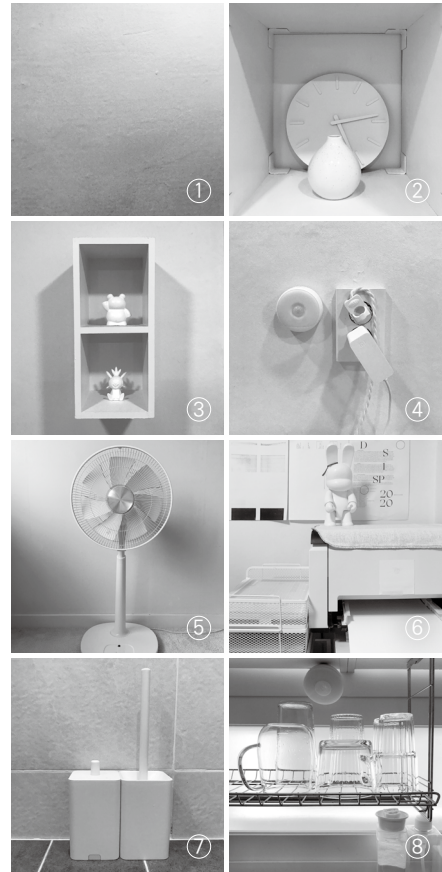
2) Y축의 사물

- (1) 벽을 마주한 면적이 넓은 사물
- (2) 벽에 비추는 자연광의 명도 차이에 따른 색
- (3) Y축의 사물은 X축일 때 포인트가 된다.



[그림 2]

- ① X축, ② X축의 사물 - 안방, ③ X축의 사물 - 거실,
- ④ X축의 사물 - (위) 싱크대 앞, (아래) 욕실 앞,
- ⑤ X축의 사물 - 안방, ⑥ X축의 사물 - 작은방,
- ⑦ X축의 사물 - 출입구, ⑧ X축의 사물 - 욕실. 욕실 슬리퍼가 하얀색이거나 베이지색이 아닌 이유는 욕실의 타일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림 3]

- ① Y축, ② Y축의 사물 - 거실, ③ Y축의 사물 - 거실,
- ④ Y축의 사물 - 거실, ⑤ Y축의 사물 - 안방,
- ⑥ Y축의 사물 - 작은방, ⑦ Y축의 사물 - 욕실,
- ⑧ Y축의 사물 - 주방. 컵의 색은 다양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투명 컵만을 건조대에 두고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뒤의 공간 반투명 유리창 벽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물과 사물

하나의 사물을 들일 때 주위의 다른 사물과의 관계를 생각한다. 안방 침대 프레임에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옆에 놓는 탁자의 다리, 그 옆 장롱의 다리 유무가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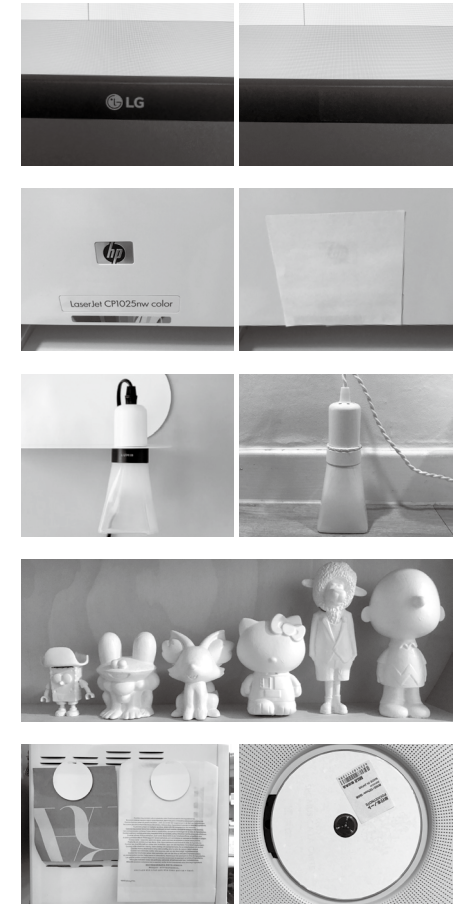


[그림 4] 안방의 사물 -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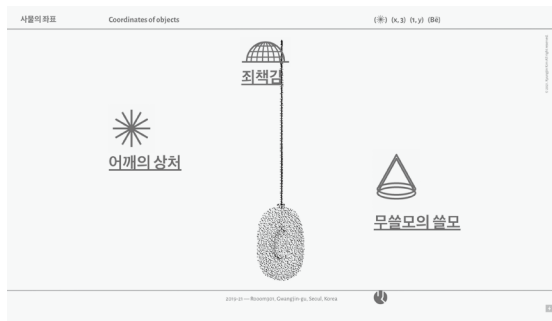
(왼쪽 위부터) 장롱, 협탁, 침대, 보조 스톨, 옷걸이 행거

사물과 나

기준에 맞는 사물을 찾지 못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나는 사물을 조정하여 사용한다. 주로 로고나 정보, 색을 없애는 행위인데, 색을 덧칠하거나, 씌우거나, 숨기거나 한다.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텍스트를 이미지처럼 사용하여 재맥락화한 사물도 있다.



[그림 5] 아이덴티티 없애기, 색 입혀 색상 없애기, 불필요한 정보 가리기, 쇼핑백이나 제품의 태그, 정보 스티커를 본래 용도와는 다르게 오브제 이미지로 사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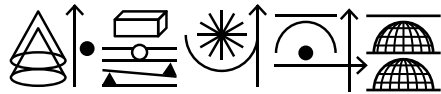
[그림 6] <사물의 좌표> 웹사이트

웹사이트 공간

웹사이트는 비교적 시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매체이다. 수정 보완이 용이하므로 아카이브 하는 데 장점이 많다. 사물과 키워드가 추가될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고, 현재의 시간을 오롯이 담을 수 있다.

<사물의 좌표> 타이틀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사물과 좌표 그리고 사물을 들이며 내가 느낀 감정을 상징하는 기호들로 로고 타이틀을 만들고, gif로 움직임을 더해 되풀이하는 과정과 태도의 연속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웹사이트는 메인 페이지, 사물 아카이브 페이지, 프로젝트 히스토리 페이지, 키워드 페이지, 개인 사이트 링크 페이지로 구성했다.



[그림 7] <사물의 좌표> 로고 타이틀

	사	물	의	좌	표
레이어	8	21	2	16	2
기호	오르락 내리락 하기	나오고 들어가기 균형잡기	빛, 희망, 반짝임	좌표, 체력 쓰기	공간, 반복하기, 순환하기

[표 4] <사물의 좌표> 로고 타이틀 모션 레이어 수, 상징 기호

책 공간

책은 사물이자 공간이다. <사물의 좌표> 소품집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 '사물다울 것'과 '공간다울 것'이다. 첫 번째, '사물다울 것'은, 실제 사물인 책을 더 실재적인 사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가벼운 것보다 무거운 것, 얇은 것보다 두툼한 것이 더 실재적이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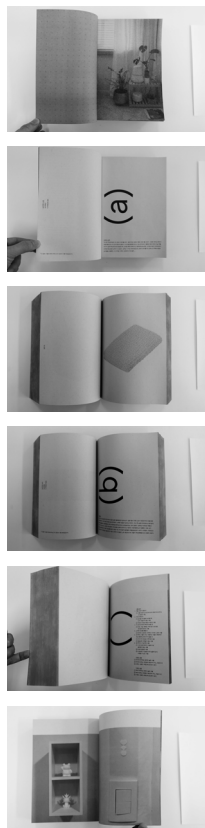
책에 사물의 인상을 덧입히고자 책의 분량을 800쪽 이상으로 덩어리감을 주었다. 그리고 종이의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책의 배면 쪽에 표지와 같은 색상을 이어지게 만들어 책을 은폐하는 장치로 사용했다. 그래서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책이 아닌 상자 같은 인상이 든다.

두 번째, '공간다울 것'은 사물을 들일 때 집의 목적에서부터 출발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을 생각하며 사물의 종류나 형태, 색상을 정했듯이 책의 공간 역시 그 안에 담을 공간의 느낌이 책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원했다. 집의 공간 분위기를 책의 물성을 통해 느끼게 하기 위해 불규칙하고 자연스러운 부산물이 배어있는 베이지색 종이로 집의 인상을 담았다. 또한, 집이라는 큰 공간 안에서 작은 부피의 식물이 집에 생기를 이끌 듯, 큰 전시 공간 안에서 작은 부피의 책이 중심을 잡아 생기를 이끌도록 유도했다. 소품집은 전시 공간에서 식물 같은 존재였다.

책 안쪽에는 세 가지 키워드에 해당하는 395개의 사물과 사물 공식, 태도 공식, 사물과 공간의 관계에 관한 콘텐츠를 수록했다.



[그림 8] <사물의 좌표> 웹사이트 세 가지 키워드 사물



[그림 9] <사물의 좌표> 소품집



<사물의 좌표> 소품집

판형:
170×230mm

페이지:
표지 4p
내지 814p

종이:
표지 캔트지 220g/m²
내지 얼스팩 70g/m²

제본:
무선제본, 칠제본

인쇄:
표지 리소인쇄
내지 레이저프린트

공간 면	정사각형 종이 갯수	노란 좌표점 갯수	설치 시간
가이드 작업			4시간
(a) 어깨의 상처	1,040개	1,113개	8시간
(b) 죄책감	640개	693개	5시간
(c) 무쓸모의 쓸모	640개	693개	5시간
바닥	1,184개	1,277개	10시간 (두 명, 5시간)
합계	3,504개	3,776개	32시간

[표 5] <사물의 좌표> 전시 공간 작업표(설치 일정: 이틀간 9~22시, 총 30시간)

전시 공간

사물을 들이는 태도는 곧 공간을 디자인하는 태도이자 이는 곧 공간을 채워 전시하는 태도와 연결된다. 나는 나의 경험이 기준과 태도가 되어 전시가 나의 정체성 공간 자체가 되도록 유도했다. 아카이브된 사물들은 간결한 인상을 준다. 필요한 기능을 제외하고 삭제된 형태를 통해 나는 전시 작업 방식을 추출했다. 단순한 규칙은 패턴을 쉽게 가시화한다. 9.75mm 정사각형의 종이조각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 붙여 생긴 패턴으로 좌표를 만들었다. 좌표점에 사물이 맞물릴 수 있게 사물 이미지 중심부와 종이의 모서리에 16mm의 노란 좌표점을 붙였다. 사용된 종이조각은 3,504장, 노란 좌표점은 3,776개이다. 단순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작업 방식으로 나의 행동에 묻은 태도를 전시에 반영하고자 했다.

전시 공간 안에 또 다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벽과 이어지는 바닥에도 종이조각을 붙여 좌표 공간을 만들었다. 디그 형태의 세 면의 벽에 '어깨의 상처', '죄책감', '무쓸모의 쓸모'를 각각 전시하고 바닥 중앙부에 '첫 번째 사물'을 놓고 다른 한쪽에 웹사이트와 소품집을 놓았다. 그로 인해 생긴 가운데 공간은 내가 선택한 사물들로 이루어진 나의 공간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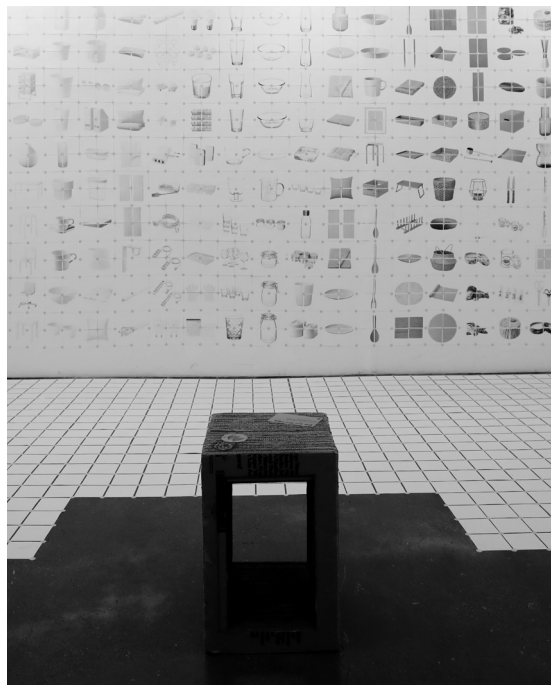
집에 있는 사물 중 가장 나다운 사물은 맨 처음 들인 종이 스티클이다. 이 사물은 개인 작업 후 버려진 골판지를 이어 붙여 만든 것이다. 기준을 세워 들인 사물들 이전에 만든 것이지만 새로이 들인 사물들과 나란히 놓아도 이질감이 들지 않는다. 이 사물은 스스로 기준과 취향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이 '첫 번째 사물'을 좌표 공간 중심에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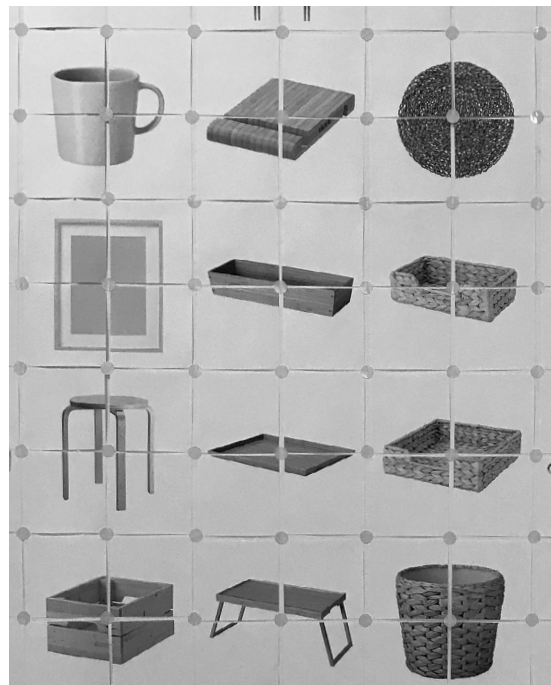
[그림 10] <사물의 좌표> 전시 전경 - 웹사이트, 소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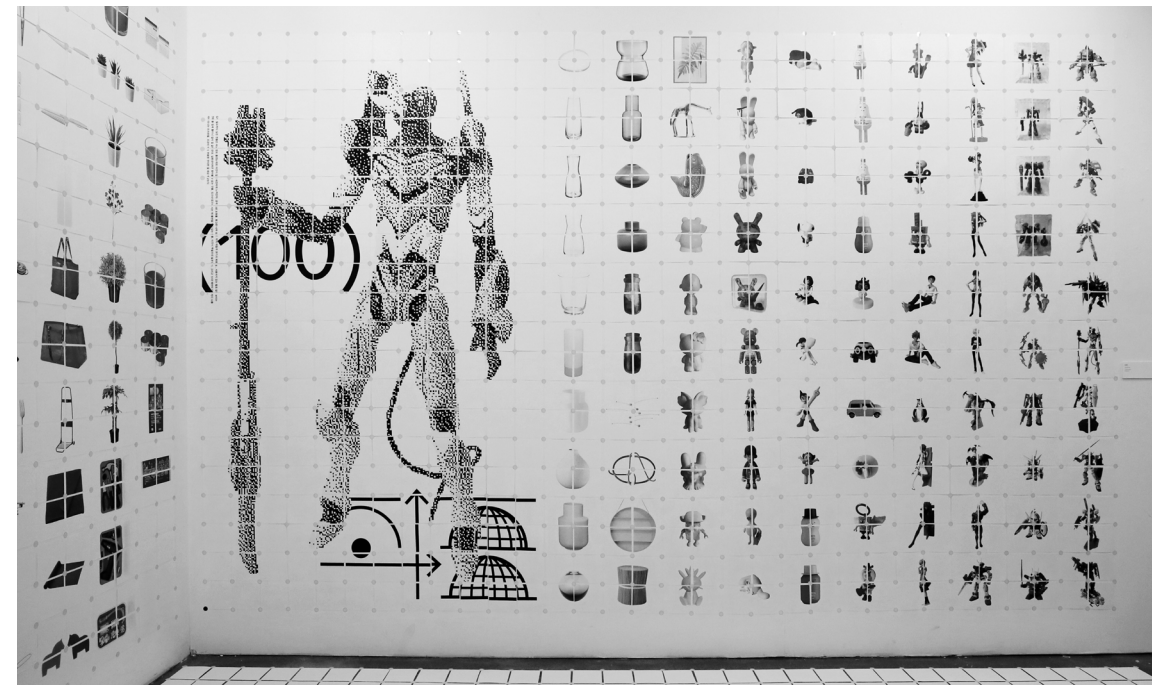
[그림 11] <사물의 좌표> 전시 전경



[그림 12] <사물의 좌표> '어깨의 상처', '첫 번째 사물'



[그림 13] <사물의 좌표> '어깨의 상처', '첫 번째 사물'



[그림 14] <사물의 좌표> '무슬모의 쓸모'

6. 달기

일상의 사물과 관계 맺는다는 것이 나만의 디자인 방법론이 될 수 있는지 모색하고자 한 이 연구는 '내가 추구하는 디자인이 뭘까'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에서 출발했다. 이 연구를 통해 사물을 들이는 태도가 디자인하는 나의 주체성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 독립 후 1년 동안 집에 들인 사물 아카이브는 사물을 대하는 기준과 행동의 태도, 그리고 사물과 관계 맺는 방식의 결과였다.

〈사물의 좌표〉를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6가지의 기준과 6가지의 태도이다. 6가지의 기준은 일종의 사물 공식으로 사물을 집에 들일 때 하는 고민이다. 사물의 미감과 합목적성뿐 아니라 사물이 놓인 공간의 목적에 대한 고민이다. 사물이 놓이는 곳은 집이기에 사물을 들일 때 기준은 결국 집이라는 공간의 목적과 기능에서 출발한다. 거주 공간의 기능은 안전하고 편안한 인상의 부드러운 유선형 사물과 따뜻한 계열의 색상, 자연을 닮은 재질을 선택하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다소 엄격한 행동의 태도를 수반한다. 사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선택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거나, 시간을 쓰는 것과 같은 몸을 쓰는 태도가 그것이다. 몸을 쓰고 움직이며 시간을 들이는 태도 없이는 계획한 좋은 결과물을 얻기 어렵고, 그렇기에 새로운 시도 또한 가능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는 사물을 들일 때 사물과 주위의 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다.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은 공간을 제 공간답게 만들어 주는 사물을 통해

공간 배치의 조화와 리듬을 만들어 준다. 사물과 공간의 관계를 통해 X축의 사물과 Y축의 사물을 정의 내릴 수 있었으며, 이는 결국 사물과 사물, 사물과 나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고, 들이고, 고치고, 사용하는 관계의 방식이었다.

공간과 사물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살피고 나의 관점을 확인하고자 한 이 연구는 내 주체를 향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로부터 일상의 사소한 행위가 결국 삶의 태도를 만들고, 세상을 보는 관점과 디자인하는 시각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동시에 디자인 결과물이 사용될 매체와 목적을 생각하고, 여러 관계의 방식들을 고민하는 것은 디자인의 역할과 본질에 다가가는 중요한 일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와 경험에서 출발한 이 연구가 나만의 관점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다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

참고문헌

- 권영걸, (2001), 『공간디자인 16강』, 국제
- 권오혁 외, (2011), 「공간의 개념정의에 관한 온라인 토크」, 『공간과 사회』 21권 2호
- 박규상, (2014), 『욕망하는 집』, 서해문집
- 오창섭, (2012), 『내 곁의 키치』, 홍시
- 가토 히사다케, (2013), 『헤겔사전』, 이신철 옮김, 도서출판 b
- 아네테 웨퍼, (2013), 『사물의 심리학』, 장혜경 옮김, 북하우스
- 아브라함 몰르, (2013), 『키치란 무엇인가?』, 엄광현 옮김, 시각과 언어
- 김재철, (2009), 「공간과 거주 의 현상학 볼노오의 공간 이해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56
- 홍경희, (2019), 「'집'을 시점-공간-장소적으로 해석한 금속 조형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그림 차례

- [그림 1] 집의 안전함이 연상되는 부드러운 유선형 사물의 인상
- [그림 2] X축, X축의 사물
- [그림 3] Y축, Y축의 사물
- [그림 4] 안방의 사물 - 다리
- [그림 5] 아이덴티티 없애기, 색 입혀 색상 없애기, 불필요한 정보 가리기, 쇼핑백이나 제품의 태그, 정보 스티커를 본래 용도와는 다르게 오브제 이미지로 사용하기

- [그림 6] 〈사물의 좌표〉 웹사이트
- [그림 7] 〈사물의 좌표〉 로고 타이틀
- [그림 8] 〈사물의 좌표〉 웹사이트 세 가지 키워드 사물
- [그림 9] 〈사물의 좌표〉 소품집
- [그림 10] 〈사물의 좌표〉 전시 전경 - 웹사이트, 소품집
- [그림 11] 〈사물의 좌표〉 전시 전경
- [그림 12] 〈사물의 좌표〉 '어깨의 상처', '첫 번째 사물'
- [그림 13] 〈사물의 좌표〉 '어깨의 상처'
- [그림 14] 〈사물의 좌표〉 '무쓸모의 쓸모'

표 차례

- [표 1] 영수증 정보(2019년 6월 17일-2020년 6월 13일)
- [표 2] 중고 거래(2019년 6월 25일-7월 31일)
- [표 3] N이메일 결제 정보 (2019년 6월 1일-2020년 5월 9일)
- [표 4] 〈사물의 좌표〉 로고 타이틀 모션 레이어 수, 상징 기호
- [표 5] 〈사물의 좌표〉 전시 공간 작업표(설치 일정: 이틀간 9-22시, 총 30시간)